



❖ 무역회관

- 미화팀 김위자 여사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무역회관의 김위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2012년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해보니 화장실 입구 카페트 위에다 누군가 변을 3곳이나 보고 휴지로 덮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위자 여사님은 아무런 내색 없이 깨끗하게 말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위자 여사님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는 최고의 직원입니다!

- 무역회관 소장 공정택 -

**당신은 성원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  
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훌륭한 일입니다  
1등 기업 성원이 김위자 여사님을 응원합니다!

